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시리즈 ‘새벽 2시의 신데렐라’ 신현빈 x 문상민, 과몰입 유발하는 신 로코 대세 등극 예감!

2024. 8. 28.

쿠팡플레이 시리즈 <새벽 2시의 신데렐라> 신현빈과 문상민 커플 케미에 대한 반응이 심상치 않다. “빛나는 비주얼만으로도 눈이 즐거운데, 신선하면서도 사랑스러운 호흡에 기분도 좋아진다”라는 댓글이 다수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첫 공개된 쿠팡플레이 시리즈 <새벽 2시의 신데렐라>(연출: 서민정, 배희영 | 극본: 오은지 | 크리에이터: 박준화 | 제공: 쿠팡플레이 | 제작: 이매지너스, 스튜디오알짜) 1, 2회에서는 사내 비밀 연애 중인 ‘윤서’(신현빈)와 ‘주원’(문상민)의 동상이몽 밀당을 통해 이별부터 시작하는 역주행 로코의 포문을 열었다. 나란히 있는 것만으로도 뽐어져 나오는 사랑스러움에 시청자들도 “윤서, 주원 둘 다 못 잃어”, “이별 반대다”라며 과몰입과 함께 호응했다.







신현빈은 첫 도전한 '로코' 장르 안에서도 완벽한 변신을 꾀했다. 그녀만의 단아하고 지적이고 당당한 전매특허 연기는 현실주의 능력녀 '윤서' 그 자체를 보여줬다. 여기에 1년 6개월간의 연애부터, 갑작스러운 이별을 당하고도 매달리겠다는 남자친구 '주원'에게 흔들리는 과정까지 생기발랄한 사랑스러움과 섬세한 감정 연기를 덧입혔다. 신현빈의 연기 내공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특유의 해맑은 미소로 여심을 훔친 문상민은 <새벽 2시의 신데렐라>를 통해 한층 더 깊어진 로맨스를 장착했다. 상냥하고 다정한 성격이 순한 눈망울과 맞물리니 항상 곁에 두고 싶은 '땡땡미'를 뽑았다. 막내 사원에서 본부장님으로 돌아온 엔딩에선 다 갖춘 완벽 재벌남으로 반전 매력까지 장착, 다시 한번 여심을 강하게 흔들었다. 헤어지자는 윤서에게 적극적으로 받아치며 직진하고 매달리는 귀여운 모습은 불가항력 무장해제 포인트였다.

이렇게 각자의 캐릭터에 오롯이 녹아든 두 배우의 로코 호흡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신현빈, 문상민 배우의 호흡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다"라는 제작진의 자신감을 십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오는 31일(토) 공개되는 3, 4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두 사람이 앞으로 헤어지기 위한 두 달 간의 데이트를 통해 그려갈 흥미로운 밀당과 섬세한 감정 변화가 더욱 기대를 모은다.

완벽한 재벌남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극 현실주의 능력녀의 고군분투를 그린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 쿠팡플레이 시리즈 <새벽 2시의 신데렐라>는 매주 토, 일 밤 9시에 공개된다. 쿠팡플레이 공개 이후 9시 20분부터 채널A에서 방송된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